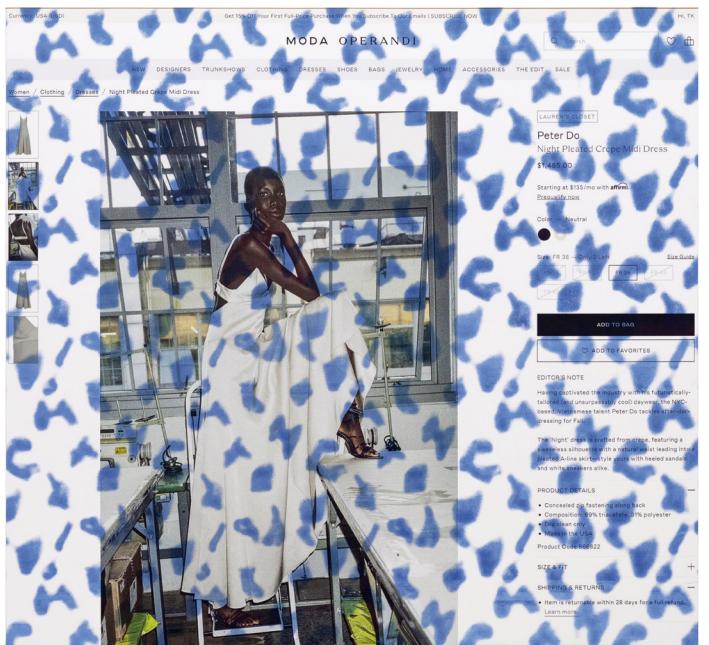


exhibition



'L'Atelier (Trunkshows)', 2022

Courtesy the Artist and Galerie Peter Kilchmann, Zurich



'Personal Shopper
(Two Women with Pink Purses and Hats)', 2022

© Tobias Kaspar Courtesy the Artist and Galerie Peter Kilchmann, Zurich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예술 생산의 의미,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 예술가의 존재 이유 등을 묻는

토비아스 카스파의 국내 첫 개인전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가

'파운드리 서울'에서 열린다.

에디터 박이현 이미지 제공 파운드리 서울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만의 공간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러나 어느 편집숍이나 카페에서 흔히 마주하는 것이 아닌 개성 넘치는 포스터를 찾고자 현대미술 레이더를 민감하게 작동해본 사람이라면, 토비아스 카스파(Tobias Kaspar)라는 이름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전시 포스터에 사용한, 작가가 19세기 유럽 패션을 자수로 표현한 작업과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스포츠 브랜드 로고를 윤슬처럼 배치한 작업은 단 한 번만 봐도 뇌리에 깊이 끊히기 때문. 이러한 토비아스 카스파의 독특한 미감이 궁금하다면,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파운드리 서울'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을 놓치지 말자.

사진, 설치, 영상, 출판,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토비아스 카스파는 현대 사회의 소비적 욕망과 가치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작가다. 이를 풀어내는 소재는 '패션'. 작가에게 패션이란 오늘날 사회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에서 토비아스 카스파는 3개의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카펫과 23벌의 니트 스웨터, 한 장의 사진으로 이뤄진 'Epicenter'는 환하게 빛나는 선진국 도시와 칠흑같이 어두운 개발도상국 풍경을 병치, 인공조명과 대량생산 등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다. 다음으로, 서양의 생활양식을 묘사한 자수 원단을 초고해상도 사진으로 찍은 후 이를 실제 사람 크기로 확대한 'The Japan Collection'은 패션과 욕망,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마지막으로

막으로 온라인 럭셔리 편집숍을 스크린 샷으로 기록한 레이어 위에 의류 패턴을 겹친 'Personal Shopper'는 패션과 예술의 미묘한 경계를 파고든다.

토비아스 카스파의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누군가 이미 제작해놓은 물품에 작가가 예술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일상생활을 둘러싼 패션이라는 거대한 굴레에 예술로 균열을 낸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누구나 한 번쯤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으레 그러려니 넘기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오늘날 예술가의 존재 이유를 피력한 것 같아 꽤 진진하다. 이는 사람들의 쇼핑을 도와주는 '퍼스널 쇼퍼'처럼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주는 행위로 다가오는 까닭이리라. 문의 02-595-0223



'Silver Brush Stroke, Théâtre de la Mode', 2022